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 간의 경로분석

이지원¹, 이내영^{2*}, 어용숙³

¹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²신라대학교 간호학과, ³동국대학교 간호학과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i-Won Lee¹, Nae-Young Lee^{2*}, Yong-Sook Eo³

¹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²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가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파악하였다. 3개 간호대학 3,4학년 307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하였으며, IBM SPSS Amos 21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과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경로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학년이 높고, 대인관계가 좋으며, 전공선택 동기가 적성과 취미에 맞을 경우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초기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형을 수정하여 설명력을 향상시켰다. 수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수용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412$, GFI=.996, AGFI=.961, RMSEA=.068). 또한 총 5개 중 4개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임상수행능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전체효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순으로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MS), clinical competence (CC),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 and career decision level (CDL)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 self-report instrument was used to measure MS, CC, CDMS, and CDL.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307 nursing students in three nursing colleges, and path analysis was employed to validate the proposed model and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Four constructs (MS, CC, CDMS, and career decision) were analyzed. To build a path model, MS and CC were linked to CDMS and career decision. The initial analysis suggested that the modification needed modification; therefore, a covariance link was added. The overall goodness of fit for indices indicated satisfactory path analysis. The indices were revealed as $\chi^2=2412$, GFI=0.996, AGFI=0.961, and RMSEA=0.068. As a result, the proposed model was acceptable with a good fit,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ths in the model. Specifically, MS and CC had a direct influence on CDMS, and MS and CDMS directly affected CDL. Moreover, MS and CC had indirect effects on CDL through CDMS. These results imply that students' CDM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when designing counseling programs for career guidance, and substantiality of CC education is needed to improve CDMS. These results may provide a practical guideline to provide educational intervention for nursing students.

Keywords : Career choice, Clinical competence, Self efficacy, Personal satisfaction, Path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Nae-Young Lee(Silla Univ.)

Tel: +82-51-999-6237 email: naeyoungle@silla.ac.kr

Received September 25, 2017

Revised (1st December 5, 2017, 2nd January 4, 2018)

Accepted January 5, 2018

Published January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성공적인 진로를 위해 직업을 가지기 전이나 후에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주제이다[1]. 특히 대학생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욕구와 흥미, 능력이나 가치 등을 파악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고, 전공지식 습득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직, 간접적인 직업세계를 경험함으로써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2]. 타 전공학생과 달리 다수의 간호대학생이 간호학 진학동기가 졸업 후 직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이기 때문에[3] 대학 진학과 동시에 이미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이다[4]. 이러한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로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게 될 때 조직에 몰입하지 못하고 이는 이직으로 연결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33.6%로[5] 높은 것도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미비한 진로선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 환경의 변화로 병원취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진로선택의 기회는 많아지고 있으나,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특히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적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6].

진로결정 수준이란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 나타나는 진로에 대해 확고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6], 진로결정 상태란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고, 진로미결정 상태란 진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정보수집을 위해 연기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결정 수준은 나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한다.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내재적 요인 및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간호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중에 중재를 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임상수행능력과 전공만족도를 들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

제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7],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학과가 자신의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지게 되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되어[8]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 즉,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동기와 태도의 조합으로[9] 미래의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10]이므로 학생의 진로결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임상수행능력은 진로성숙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11]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수행능력이 중요한 요인이다[12]. 간호교육은 이론학습과 임상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시 개인적 특성 및 실습교육 환경 등의 요인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임상실습만족도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대학생 활적용 및 진로정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1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며, 자기효능감은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조직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진로선택과 진로적응의 주요한 결정인자로[15], 진로에 대한 자신의 주도성과 자신감이 있어야 진로에 대한 나머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다[16].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정체감[1][11], 진로탐색행동[8][17]이 있고, 진로결정수준의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6]등이 소수 있으나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 진로를 결정 후 대학생활을 하므로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실무를 직간접 경험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간호사 직업에 대한 적성과 진로를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간호교육

적 중재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수준을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수준을 비교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확인하고 진로결정 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자는 B시 소재 3개 간호대학의 비확률 편의 표집하였고 취업이 구체화되는 3, 4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표본크기는 인과모형의 안정적 추정을 위해 최소한 200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실무적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300개가 가장 적절하므로[18], 최소 필요 표본수 300명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지 누락을 고려하여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내용에 누락이 있는 93부를 제외하고 307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z, Klein과 Taylor[19]등이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SES)를 단축형(CDMSSES-DF)을 Lee와 Lee[20]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CDMSSES-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을 사용하였다.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5개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5문항이다. 5점 척도로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Lee와 Lee[20]의 연구에서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 이었다(Table 3).

2.3.2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은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er[21]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Scale(CDS)를 Koh[22]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전공 선택과 진로에 대한 확신,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으로 구성되며 18문항이다. 4점 척도로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Koh[22]의 연구에서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Sim[23]이 개발한 전공학과 만족도 도구를 Kim[24]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의 5개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2문항이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개발당시 .92였으며, Kim[24]의 연구에서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4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Schwirian[25]의 Six-Dimension Scale을 기반으로 Choi[26]발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협력관계, 대인관계/의사소통, 전문직 발전의 5개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45문항이다. 5점 척도로 측정하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92 이었으며 Choi[26]의 연구에서는 .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승인번호 1041449-201510-HR-003)에서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시작 전에 타 대학 소속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일대일로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과 연구참여 거부시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설문지 자료는 연구목적외로 사용되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보조원이 배부 및 수거하였으며, 대상자가 자가기입하게 하였으며 작성에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일반적 특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수준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사후검정은 scheffe test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하였으며,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로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자가 93.2%로 많았고, 평균 연령은 22.1세이며, 4학년이 53.1%로 약간 많았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58.6%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는 ‘양호하다’(73.6%), 대인관계는 ‘좋은 편’(65.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업성적은 ‘3.0-3.9’가 81.1%로 가장 많았고 전공 선택 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40.1%)가 가장 많았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인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및 F-test를 실시하였다. 진로결정 수준은 평균 3.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3.8, 전공만족도는 3.8,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3.5였다(Table 1).

진로결정 수준은 학년,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 4학년이($p < .001$),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p < .001$), 대인관계가 ‘좋은 편’인 경우($p < .001$), 전공 선택 동기가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인

경우($p = .003$)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 건강상태,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자인 경우($p = .032$),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p < .001$), 대인관계가 좋을수록($p <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성별, 건강상태, 대인관계, 학과선택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자인 경우($p = .004$),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p < .001$), 대인관계가 좋을수록($p < .001$), 전공 선택 동기가 ‘봉사직을 갖기 위해’인 경우($p = .004$)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임상수행능력은 성별, 학년, 종교, 건강상태,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자인 경우($p = .014$), 4학년인 경우($p = .045$), 종교가 기독교, 불교인 경우($p = .045$),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p < .001$), 대인관계가 좋을수록($p < .001$)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3.3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독립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인과적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2).

진로결정 수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p < .001$), 전공만족도($p < .001$), 임상수행능력($p < .001$)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임상수행능력($p < .001$), 전공만족도($p < .001$)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p < .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3.4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로분석

3.4.1 가설적 경로 모형 검증 및 수정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7,8][10]의 결과와 변인간 상관관계(Table 2)를 토대로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외생변인으로 진로결정 수준을 내생변인으로 가설적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효과를 경로 분석하였다. 이에 가설적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임상수행능력을 외생변수로 하는 경로를 삭제하여 경로모형을 수정하였다(Figure 1).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성은 χ^2 , GFI, AGFI, RMSEA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Table 3). 양호한 적합도 기준인 χ^2 의 p가 .05이상, GFI와 AGFI가 .9이상, RMSEA가 1이하를 만족하여 모형은 적합하였다.

Table 1. Differences of Outcome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DMSE*			MS†			CC‡			CDL§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21(6.8)	4.0±0.5	2.152	(.032)	4.1±0.4	2.894	(.004)	3.8±0.6	2.484	(.014)	3.1±0.5	1.611	(.108)
	Female	286(93.2)	3.8±0.5			3.8±0.5			3.5±0.6			2.9±0.5		
Grade	3rd	144(46.9)	3.7±0.5	-1.526	(.128)	3.8±0.5	-0.643	(.521)	3.5±0.5	-2.014	(.045)	2.8±0.5	-3.945	(p<.001)
	4th	163(53.1)	3.8±0.5			3.8±0.5			3.6±0.6			3.0±0.5		
Religion	Protestant	32(10.4)	3.9±0.4	0.997	(.410)	3.8±0.5	0.336	(.853)	3.6±0.5	2.474	(.045)	2.8±0.5	0.688	(.601)
	Buddhist	40(13.0)	3.8±0.5			3.8±0.6			3.6±0.5			2.8±0.6		
	Catholic	53(17.3)	3.9±0.4			3.8±0.6			3.7±0.5			3.0±0.5		
	Others	2(0.7)	3.8±0.0			3.6±0.3			2.9±0.3			2.9±0.2		
	None	180(58.6)	3.7±0.5			3.8±0.5			3.5±0.6			2.9±0.5		
Health status	Good ^a	226(73.6)	3.9±0.4	12.113	(p<.001)	3.9±0.5	15.327	(p<.001)	3.6±0.6	8.161	(p<.001)	3.0±0.5	9.725	(p<.001)
	Fair ^b	74(24.1)	3.6±0.5		a>b, c	3.5±0.5		a,c>b	3.3±0.6		a<b	2.7±0.5		a>b
	Poor ^c	7(2.3)	3.3±0.5			3.5±0.6			3.4±0.3			2.5±0.6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a	202(65.8)	3.9±0.4	18.824	(p<.001)	3.9±0.5	16.227	(p<.001)	3.7±0.5	11.105	(p<.001)	3.0±0.5	10.204	(p<.001)
	Fair ^b	102(33.2)	3.6±0.4		a>b	3.6±0.5		a>b	3.3±0.6		a<b	2.7±0.5		a>b
	Poor ^c	3(1.0)	3.3±0.4			3.4±0.7			3.3±0.3			2.9±0.4		
Grade point average	≥ 4.0	17(5.5)	3.8±0.4	1.121	(.341)	4.0±0.6	1.010	(.389)	3.5±0.5	0.289	(.834)	2.9±0.6	1.193	(.313)
	≥ 3.0, <4.0	249(81.1)	3.8±0.5			3.8±0.5			3.6±0.6			2.9±0.5		
	≥ 2.0, <3.0	37(12.1)	3.7±0.5			3.7±0.6			3.5±0.5			2.8±0.5		
	<2.0	4(1.3)	3.8±0.4			3.6±0.7			3.7±0.2			2.6±0.8		
Major choice motivation	Considering one's high school academic records	23(7.5)	3.8±0.5	1.853	(.089)	3.8±0.5	3.214	(.004)	3.6±0.5	1.664	(.130)	2.9±0.6	3.368	(.003)
	Corresponding to one's aptitudes and tastes	67(21.8)	3.9±0.4			3.9±0.5			3.6±0.5			3.1±0.5		
	Higher employment rate	123(40.1)	3.7±0.5			3.7±0.5			3.4±0.6			2.8±0.5		
	Advice from parents and other adults	53(17.3)	3.9±0.4			3.7±0.6			3.6±0.7			2.8±0.5		
	For volunteering opportunity	7(2.3)	4.0±0.4			4.1±0.4			3.9±0.6			3.2±0.7		
	Good impression about nurses	33(10.7)	3.8±0.4			3.9±0.5			3.5±0.6			2.9±0.5		
Total			3.8±0.5			3.8±0.5			3.5±0.6			3.8±0.5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S, Major satisfaction; ‡CC, Clinical competence; §CDL, Career decision level

Table 2.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and Career decision level

	CDMSE	MS [†]	CC [‡]	CDL [§]
	r(p)	r(p)	r(p)	r(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1.000	.478(p<.001)	.508(p<.001)	.491(p<.001)
Major satisfaction		1.000	.501(p<.001)	.432(p<.001)
Clinical competence			1.000	.376(p<.001)
Career decision level				1.000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S, Major satisfaction; [§]CC, Clinical competence; [§]CDL, Career decision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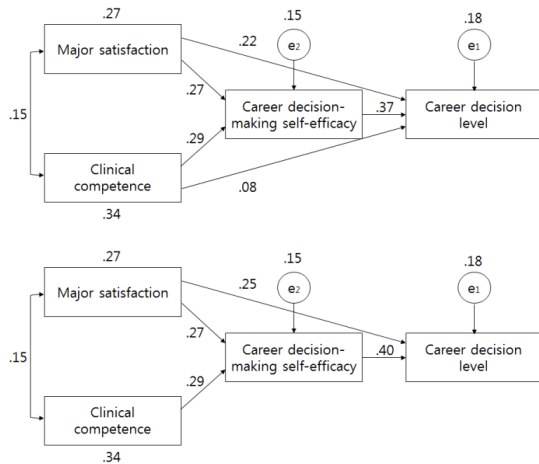


Fig. 1. Hypothetical & Modified path model diagram.

3.4.2 수정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수정 경로모형에서 선정한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0.298, p<.001$), 진로결정 수준($\beta=0.256, p<.001$)으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미하였고 임상수행능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0.359, p<.001$)으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미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수준($\beta=0.369, p<.001$)으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미하였다(Table 3).

Table 3. Parameter and significance in models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B	S.E.	β	C.R.	p
Major satisfaction	Career →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67	.049	.298	5.483	p<.001
Clinical competence	Career →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88	.044	.359	6.607	p<.001
Major satisfaction	→ Career decision level	.249	.053	.256	4.675	p<.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decision level	.400	.059	.369	6.744	p<.001
Goodness	χ^2	p	DF	GFI	AGFI	RMSEA
Hypothetical model	.000	-	0	1.000	-	-
Modified model	2.412	.120	.1	.996	.961	.068
Criteria		>.05		>.9	>.9	≤1

3.4.3 경로계수의 분할

설명변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제시하였다(Table 4).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설명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직접효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의 순이었으며, 간접효과는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의 순이었다. 전체효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순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의 순이었다.

Table 4. Indirect, direct and total effects in models

Exogenous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Direct	Indirect	Total	R ²
Major satisfaction	Career →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98	-	.298	.324
Clinical competence	Career →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59	-	.359	
Major satisfaction	→ Career decision level	.256	.110	.366	
Clinical competence	→ Career decision level	-	.132	.132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decision level	.369	-	.369	.292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의 정도와 이들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평균 평점 3.8점으로, 1, 2,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등[1]3.6점보다 높았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을 통해 입학당시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학생들이 자신의 기대와 진로에 확신을 가져 전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1]에 비추어 해석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1, 2 학년을 포함한 연구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경우 성별, 건강상태, 대인관계, 학과선택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며, 건강상태는 보통인 경우보다 양호하거나 나쁠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집단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학과를 선택한 동기가 봉사직을 갖기 위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동기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Jung 등[1]과 Jeong과 Shin[7]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흥미와 적성, 특성(봉사직업)을 고려하여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2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에 대한 좋은 인상으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은 10.7%이었다. 반면 높은 취업률과 학교성적, 부모의 권유 등 간호학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64.9%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추어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들 학생들에 대한 전공만족도를 사정하고 전공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입학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겠다.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평점 3.5점으로 이는 Bong[27]의 3.4점과 유사하였다. 임상수행능력은 성별, 학년, 종교, 건강상태, 대인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자인 경우, 4학년인 경우, 종교가 기독교, 불교인 경우, 건강상태

가 보통인 경우, 대인관계가 보통인 경우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Bong[27]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가 좋고,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에서 임상수행능력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다소 유사하였다.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평점 2.9점으로, 이는 Jung 등[1]의 3.3점보다 낮았으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28]의 3.2점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남자인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의 평균 평점은 3.8점으로, 이는 Park과 Lee[29]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2.6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대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진학과 동시에 이미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어진 상태이며, 대학생활을 통해 진로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선택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전문직 직업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환자 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 간호업무의 과중함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다시 고민할 수 있다고 하였다[4][8][11].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문제에 대하여 상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체적인 진로결정을 해야 할 4학년에게는 자신의 적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진로결정 수준은 학년,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선택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 4학년이($p<.001$),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p<.001$), 대인관계가 ‘좋은 편’인 경우($p<.001$), 전공 선택 동기가 ‘적성과 취미에 맞아서’인 경우($p=.003$)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다. 진로결정과 학년과의 관계에서는 Koh[22]의 연구에서는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건강상태와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가 없지만 간호사 직업은 심리적 스트레스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힘든 직업이라 간호대학생들은 건강상태가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생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인관계와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는 친구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Park과 Kim[3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좋은 대인관계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며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와 진로결정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학교성적에 맞추어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진학동기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들에 근거해 볼 때[1][7], 간호학 진학동기에 따라 학생들을 사정하여 입학 후 간호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간호학 학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지도를 통해 전공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학에 입문한 학생들을 위해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간호학 학과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지지해주는 방법을 통해 간호학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감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독립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의 인과적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진로결정 수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p<.001$), 전공만족도($p<.001$), 임상수행능력($p<.001$)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의 경로모형 검증 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임상수행능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전체효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순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의 순이었다.

진로결정 수준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밝혀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선택과정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11][31]. 이는 선행연구에서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32],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련 변인을 탐색한 Park과 Lee[28]의 연구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입학과 함께 간호직이라는 정해진 진로선택과 전공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로 진로결정 효능감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4][8]. Song과 Chathoth[33]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의 만족도와 진로결정 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단순히 학과선택의 만족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활의 주요 영역인 학업성취와 진로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대학에서의 전공과 전공수업은 이후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및 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8], 전공에 대한 부적응은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낮은 자신감으로 이어져 향후 진로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파악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사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간호대학생은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를 함께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가 없어 부분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들은 타과 학생들과 달리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을 통해 직업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먼저 경험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부합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을 통해 입학당시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던 학생들이 자신의 기대와 진로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임상수행능력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 맡은 역할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향상되며[34], 임상수행능력과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35].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상수행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진로결정 수준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학년이 높고, 대인관계가 좋으며, 전공선택 동기가 적성과 취미에 맞는 경우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임상수행능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전체 효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27>
- [2] J. S. Jang,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identity status,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Seoul, 2003.
- [3] K. S. Bang, J. K. Cho,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and graduates on nursing and future career",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88-97, 200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88>
- [4] H., Cho, G.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0, no. 2, pp. 163-173, 2006.
- [5] K. S. Kim, B. Y. Chung, J. K. Kim, A. Y. Lee, S. Y. Hwang, J. A. Cho, et al.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Adults Nursing*, vol. 25, no. 6, pp. 701, 2013. DOI: <https://doi.org/10.7475/kjan.2012.24.6.701>
- [6] S. O. Kim,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2, no. 2, pp. 210-219,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210>
- [7] M. H. Jeong, M. 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 [8] I. O. Moon,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83-91,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83>
- [9] Z. X., Zhang, W. Lux, D. Arther, T. Wong, "Nursing competencies: Personal characteristics contributing to effective nursing performance", *Journal Advanced Nursing*, vol. 33, no. 4, pp. 467-476, 2001. DOI: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1.01688.x>
- [10]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2005.
- [11] E. H.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5, no. 1, pp. 15-21, 200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9.15.1.015>
- [12] H. J. Lee, H. Y. Lee, K. J. Kang, "The effect of clinical performanc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career maturity up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2, no. 1, pp. 425-437, 2017. DOI: <https://doi.org/10.21097/ksw.2017.02.12.1.425>
- [13] H., K. Hyoung, Y. S. Ju, S. I. Im, "A Concept mapping study on clinical stress for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4, pp. 394-404, 2014.170-177.
- [14]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d Company, 1997.
- [15] A. E. Abele, D. Spurr, "The longitudinal impact of self-efficacy and career goals on objectiv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Journal Vocational Behavior*, vol. 74, pp. 53-62, 2009. DOI: <https://doi.org/10.1016/j.jvb.2008.10.005>
- [16] J. C. Lee, "Theoretical study and comparison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3, no. 1, pp. 49-66, 2013.
- [17] K. A., Lee, J. H.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2, no. 1, pp. 42-49, 2015. DOI: <https://doi.org/10.16952/pns.2015.12.1.42>
- [18] M. S. Garver, J. T. Mentzer, "Logistics research methods: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test for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vol. 20, no. 1, pp. 33-57, 1999.
- [19] N. E. Betz, K. L. Klein,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4, 47-57, 1996.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9600400405>

[20] K. H. Lee, H. J. &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 12, no. 1, pp. 127-136, 2000.

[21] S. H. Osipow, C. G. Carney, J. Winer, B. Yanico, M. Koschier,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ed.)*. Columbus, OH: Marstthon Consulting and Press, 1980.2006.

[22] H. J. Koh,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992.

[23] E. S. Sim, *Gender, class and major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and student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3.

[24]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007.

[25] P. M. Schwiria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nurs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Nursing research*, vol. 27, no. 6, pp. 347-350, 1978.
DOI: <https://doi.org/10.1097/00006199-197811000-00004>

[26]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27] Y. M. Bong, *Relationships between maternity & women's health nursing and pediatric nursing theoretical education hours and clinical competency and stress associated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12.

[28] M. J. Kim, B. W. Kim,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 20, no. 1, pp. 13-25, 2007.

[29] S. G. Park, Y. H. Lee, "A study on family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1, pp. 141-160, 2002.

[30] S. Y. Park, J. I. Kim, "A mediation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work value,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0, pp. 507-533, 2017.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0.507>

[31] Y. H. Jeong, H. S. Kang, J. S. Kim, "Employment preparation, work valu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Research*, vol. 22, no. 1, pp. 71-88, 2011.

[32] K. N. Kwon, E. H. Choi,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4, no. 1, pp. 19-28, 2010.

[33] Z. Song, P. K. Chathoth, "Career choice goals: the contribution of vocational interests, contextual support, and contextual barrier", *Journal of China Tourism Research*, vol. 4, no. 1, pp. 98-123, 2008.
DOI: <https://doi.org/10.1080/19388160802099923>

[34] S. Kendall, L. Bloomfield, "Developing and validation a tool to measure parenting self effica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51, no. 2, pp. 174-181, 2005.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5.03479.x>

[35] M. J. Shin, Y. I. Chun,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7, pp. 281-304, 2017.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7.281>

이 지 원(Ji-Won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이 내 영(Nae-Young Lee)

[정회원]



- 2001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7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어 용 숙(Yong-Sook Eo)

[정회원]



- 2000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임파워먼트, 핵심역량